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최근들어 오페라, 클래식, 연극 등 거의 모든 장르에서 대형화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불교문화계는 대형 공연을 고사하고 이렇다 하게 불만한 공연과 전시 등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우선 대중들의 관심을 끌 다양한 창작물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좋은 창작품들을 양산해 내려면 무엇보다 탄탄한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불교계에는 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일천하다. 문화 포교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문화마당은 언제나 썰렁한 현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자본·전문인력 부족속 좁아지는 문화마당

- 글 쓰는 순서 ●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서명
-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 13. 기자회견

■ 대중적인 대형 창작물이 없다
 일반 문화계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오페라의 유령'을 비롯해 '아이디' '투란도트' 등 대형 창작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퇴조에도 불구하고 값 비싼 공연 티켓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

'아이티볼'에 이어 2000년 한국적 창작 오페라인 '직지'가 박범훈 교수에 의해 탄생했다. 지난해에는 이관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영화 '동승'을 오페라로 각색한 '동승'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고 이들 공연들이 모두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객석을 메울 정도의 호평은 받았다. 그래서 불교문화계가 짐채 돼 있는 현실에서 대형 창작물의 부재가 더욱 아쉽다.

과거 대형 창작물들을 많이 발표했던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시대가 변해 문화는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될만큼 대중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며 "그래서 문화계도 내실있고 볼거리 풍부한 매머드급 대형 공연만이 살아남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총장은 "불교계도 문화 포교에 관심있는 몇 개의 사람이 연계해 내실있는 창작물들을 만들어 낸다면 공연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조언했다.

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7년동안 불교문화계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클래식으로 포교에 힘써온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연고투'는 이를 절실히 대변해 주고 있다.

변변한 후원 단체 하나 없이 7년 동안 정기음악회 등을 열어온 니르바나는 작자만 남았다. 니르바나측에 따르면 창단 이후 니르바나의 빛은 무려 7억원에 이른다. 출연료와 대관료 등 행사관련 비용의 합계가 표를 팔아 얻은 수익금을 항상 넘어섰기 때문이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니르바나는 급기야 지난 6월 후원회를 결성했다.

이렇게 정기연주회도 이어가기 힘든 현실에서 좋은 창작품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비해 서울은 물론 인근 경기도 지역에서까지 원정 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년에 10억 이상의 지원금이 따라붙는다. 또한



오즘 일반 문화계에는 대형 창작 기획작품에 관객들이 몰리는 추세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문화포교를 활성화 하기위해선 작품구성이 탄탄한 대형 공연들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1999년 공연된 오페레타 '아이티볼'.

차세대 유망주 발굴, 예술 장학금 지원부터 시작을 교계 언론사 예술단 운영·후원회 활성화 등이 대안 공모전·단체 기획전 많아야 포교효과... 고급화도 관건

다. 눈앞의 이익과 단맛에만 빠져 특정 장르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래도 관객들은 작품의 탄탄한 구성력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해 공연장을 앞다뒀 찾고 있다. 차별화된 고급 문화상품들은 불행에도 대중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사례다.

그렇다면 불교계에는 이런 대형 창작물들이 없었을까. 대형 공연은 주로 출연자와 무대 규모가 큰 오페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불교를 소재로 한 최초의 오페라는 1971년 장일남 한양대 교수가 만든 '원효'다 국내 최초의 창작 오페라로서 김자경 오페라단(71년)과 국립오페라단(83년), 글로리아오페라단(95년) 등에 의해 세차례나 공연될 정도의 대형 창작물이었다. 1999년 정부기 중앙대 교수의 오페레타

이런 현상은 비단 음악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불교 미술계 역시 주로 개인 창작 위주의 소규모 전시에 국한된 것이 많아 대중들의 발길을 붙잡기에만 한계가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호평받은 바 있는 '동국미술인회 창작전'과 같은 단체회원전을 많이 열어 한 자리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대형 전시가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순 동국미술인회 회장은 "회원들간의 작품 아이템 공유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보여주는 것만이 문화 적자생존의 시대에 불교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지원금도 후원금도 없이...
 문제는 돈이다. 대형 기획공연과 창작물

개신교는 CBS 재즈 심포니, 기독교 TV 오케스트라 등 교계의 방송국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 활발한 음악 선교를 하고 있다. 2년에 한번 씩은 해외 선교 포교까지 갈 정도다.

진행 스님은 "외국 종교방송사들의 경우 오케스트라를 꼭 하나씩은 운영하며 음악을 통해 선교를 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언론사들이 중심이 돼 오케스트라나 연합합창단을 결성해 후원 모금도 하고 홍보도 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행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단장은 "문화 포교 사업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생각으로는 절대할 수 없다. 문화를 통해 불교를 알리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불자기업인들과 문화재단, 큰 사람들이 중심이 돼 후원회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주는 문예진흥기금 제도로 적극 활용해 볼만하다. 공연과 전시 기획 취지만 성실히 구성해 신청한다면 적은 돈이지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동국대 손재현 체육교육과 교수는 "경쟁률이 만만치 않지만 공연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정말 필요한 후원제도"라며 "자신의 작품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정확한 취지를 알린다면 예산을 지원받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실제로 손교수는 3년전 무용극 '사천왕'을 무대에 올릴때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았다.

■ 인재불사가 먼저다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개신교 신자인 강민선(가명·25) 양은 원주시 개운동 모교회에서 유학 생활내내 장학금을 받았다. 대신 교회 성가대를 위해 10년간 일한다는 조건이었다. 실력은 뛰어났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할 뻔한 강 씨

는 교회의 도움으로 유학을 다녀왔으며 지금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맹활약중이다. 물론 강씨는 교회 지휘자로 일하며 전국 순회공연을 하는 등 교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불교계는 오페라와 같은 대규모의 공연을 하려면 다른 종교 음악가들을 출연시켜야 공연이 이뤄질 정도로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1999년 오페레타 '아이티볼'을 공연시 불교 성악가들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적이 있다고 당시 기획을 맡았던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국장) 씨는 아픈 기억을 회고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한 수원 포교당 성관 스님은 4-5년 전부터 젊은 음악인재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어 문화 인재양성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공연시설을 갖춘 수원 포교당에서 이들이 주축을 이룬 음악회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있는 이들의 부러움까지 사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도 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주

형기씨도 당시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인터뷰를 통해 "학비가 없어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하지 못할 형편이었는데 장학금을 준다는 한인 교회들은 유혹(?)의 손길이 많이 뻗어왔다"고 밝힌바 있다.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개신교나 천주교 등에서는 종교생태부터 음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금과 장학금을 주며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해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해 1등공신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불교계가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선 당장 피드백이 없어도 해당 사찰의 신도 자녀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국대를 비롯한 종합대학교에서 문화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공모전 등을 활성화해 종교생태부터 예술적 소양이 뛰어난 인재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울러 조계종 총무원에서 주최하는 불교미술대전이나 창작 천불가 공모대회와 같은 종단 차원의 문화예술 경연대회도 힘

결 의 문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연합회는 지난 7월19일 중앙종무기관 일부 일반직 종무원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관할청에 접수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우리 종단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중앙종무기관의 일반직 종무원들에 대하여 부당 해고나 임금 착취 등 근로와 관련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욕구를 사회법에 의존하여 충족하려는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의 종교당치 않은 행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2,500여개 사찰을 관리하고 1만 2천 여명의 출가 수행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계종단의 중앙종무기관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불교와 승단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에 적극 반대하는 <교구본사주지연합회>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1. 노동조합의 설립이 대내외적으로 원결되는 순간, 전국 본말사에서는 총무원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할 것이다.
 - 총무원은 전국 본말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들의 종교 활동의 소산인 삼보정재를 종교적 방식이나 가치관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유지 운용되는 총무원에 납부할 수 없다.
 - 전국의 모든 사찰과 스님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왔던 조계종의 중현중법 준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재가 종무원이 노동법과 '노동조합'이라는 세속의 법과 방식을 동원하여 '종단 개혁'과 '사

- 부대중공동체' 운용하는 불자당치 않은 자들을 위해 쓰여 질 분담금 납부를 전면 거부할 것이다.
2. 총무원 집행부는 노동조합 구성원들에 대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즉각 실행하라.
 - 오히려 전국 2,500여 개 본말사 및 수많은 소속·산하기관에는 수많은 재가불자들이 중앙종무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신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찰과 산하 기관에서 재가 종무원들의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이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근무 여건을 점차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러한 때, 중앙종무기관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은 재가 종무원에 대한 기피 등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전하고 선량한 다수의 재가 종무원들을 보호하고 종무원 상호 뿐 아니라 출재기간 올바른 관계 개선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노동조합 설립 참여자들에 대하여 단호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종단 집행부에 촉구한다.
3. 일반직 종무원은 지금까지 견지해온 재가불자를 대표하는 신심과 원력을 지닌 사부대중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포기하고 속화의 길을 자초하는 노조설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입장을 밝히며 우리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불교와 교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부 일반직 종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중앙종무기관의 모든 조치와 결정을 위법방구의 결단으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이며, 어떠한 종단적 회생도 감수할 것임을 천명한다.

불기 2549(2005)년 8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